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그들만의 세상에서 인간-되기

대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한복 여성과 양복 남성이 거죽이나 동료로 공존하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그런데 외계인이 이런 풍경을 본다면, “아! 이 지역은 여성이란 존재가 과거 전통을 지켜 나가는 곳아구나!”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다.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남녀 동등 학력을 갖춘 80년대 이후 세대에 성 차이가 성차별로 작동하는 일상은 숙명론으로 수용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김지영이 아픈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울증 여파로 뒷세대 여성들에게 빚어진 그녀의 분열증을 보노라니 문득 나혜석이 떠오른다. 한 세기 전, 개화기 조선 여성으로 예외적인 고등교육을 받으며 전방위 예술가로 활동하던 나혜석은 서울 용산시립병원에서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개인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에 고통스러운 인생길에 들어선 나혜석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 이전에, “여자도 사람이외다”라고 선언했다. 바로 그 외침이 김지영의 아픔과 절규로 반복되는 중이다. 이제 와 다시 보니, 김지영의 우울증을 예고하듯이, 나혜석은 임신과 모성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한

바 있다. “심신의 피곤은 인제 극도에 달하여, 정신은 광증이 발하고, 몸에는 중기가 끊일 세가 없었다”(‘모(母)된 감상기’, 1923)라고. “엄마도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국민학교 때까지 오남매 중에엄마가 공부 제일 잘했어. 근데 오빠들 공부 시키느라 정계전에서 옷을 만들었지”라며 아픈 딸 김지영 대신 손녀 육아를 맡아 주려고, 바쁘게 해 오던 식당 영업조차 그만두려는 친정 엄마의 회고담은 현재진행형 과거 모습이기도 하다. 아니나다를까? 어두운 극장에서 여성 관객의 울음소리가 간혹 들려온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 글을 쓰면서 ‘2’자로 시작된 주민등록번호, 제2의 신분 ‘여성’으로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동시에 나 자신의 남은 인생길을 여자답지 않게 창안해 나가야 한다는 소명감이 솟구치기도 한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진무로 요구되는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여자답게’란 숙명론이 시대착오적 정신병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개인 김지영의 인생길은 힘들어도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할 인생 여정이다. 10월 말 개봉한 ‘우먼 인 할리우드’

(This Changes Everything, 2018)는 188편의 할리우드 영화와 미디어산업에서 일해 온 96명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엮어 낸 다큐이다. 성차별적 고용 불평등 증언에 초점을 맞춘 이 작품은 ‘텔마와 루이스’ (Thelma & Louise, 1991) 이후 백마 탄 왕자 없는 독립여성 이미지 구축에 나선 지나 데 이비스가 꾸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의 힘을 보여 준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제작 콘텐츠가 글로벌미디어 80%를 지배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테면, 할리우드가 영화산업 초기보다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남성 위주로 꾸러졌다는 사실도 통계치를 통해 입증된다. 결정권은 자본 권력인 남성이 갖고 있기에 능력 있는 여성 감독들의 진출과 저항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감독은 연기지도 해 줄 테니 무릎에 앉아 보라고 하더군요. 톰헹크스도 무릎에 앉혀나오?”라는 사른 스톤의 경험담은 악습에 불과한 업계의 진실을 실명으로 고발한 연기자들의 용기를 증명해 준다. 할리우드에서 촉발된 미투 운동이 세계 각 분야로 퍼져 나가는 변화하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가 우리 현실에도 접속 중이다.

기고

쉽게 얻는 것은 없다

잘 알고 있어서다.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는 원인은 성취라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고통이 없으면 성취감도 없고,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끼려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즐기는 이들이 더러 있나 보다. 물론 법상치 않다.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는 등산가, 푸른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오래 내려가고자 하는 프리 다이버처럼 이들은 극한의 고통과 싸운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맞서 싸우는 이유는 한결같다. 자신을 이겨 내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과 희열 때문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시련과 고통을 즐길 준비가 돼 있는가? 의도치 않게 고통스런 상황이 연거푸 되풀이 된다

면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개인의 생각과 자세에 따라 차이도 존재한다. 잠깐의 즐거움 뒤에는 견줄 수 없을 만큼의 힘겨움이 있고, 대다수는 고된 아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쉬운 길을 걸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산소통 없이 히말라야 14개 봉을 오른 고(故) 김창호 대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분명한 건 숙련된 이들은 고통마저도 성스러운 기쁨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치부한다. 더 이상 고통스런 상황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가 너의 길은 항상 이거야라고 정해 놓은 것처럼 말이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타인이 알려준 순탄한 길, 걷지 않으려한다. 다행히도 우리 남구정에는 고생 끝에 삶의 행복을 찾고 있는 이들이 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질 지언정, 훗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22만 주민들이 있기에 사업 추진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인적이 뜸한 곳에는 이렇다 할 길이 없다. 누군가 수시로 찾아와야만 흔적이 남는다. 남들이 쉽게 걸지 않는 그 길 위에, 삶을 비비며 숨결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집을 짓고 싶다.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지 달려가겠다. 자신에 대한 존재 이유와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자괴감 따위에 빠져서 흐느적거릴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고통을 즐기는 방법을 통해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

청춘 특·특

‘노 키즈 존’

에서도 많은 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노 키즈 존 확산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1268명 중 약 940명(78.6%)이 찬성한 것이다. 또 어린이 동반 고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84.3%에 이르렀다. 실제로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식당에서 만 24개월 된 아이가 뛰어들어 숨진 중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부모는 식당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식당 주인과 부모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아이의 부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종업원 또한 부상을 입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아이의 부모쪽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편 노 키즈 존이 아동 혐오 혹은 차별이라는 시선도 있다. 12살 동화 에세이 작가 전이수는 자신의 수필집 ‘마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에서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노 키즈 존이 뭐예요? 어른들은 잊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 그 어린이였다는 사실을”이라고 애

기했다. 전이수의 이러한 발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 더 언급돼 화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특정한 성별을 아예 입장조차 못 시킨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며 혐오다. 그것이 어린이라고 해서 왜 차별이 아니겠느냐”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 키즈 존 식당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재판부는 모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업소 쪽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단을 받아낸 가족은 당시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식사하기 위해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이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었다. 반면, 식당 측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일부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여러

움을 겪게 돼 이용 제한 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입장인 고객조차 노 키즈 존에 찬성한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았다. 단순히 아이들의 시끄러움과 산만함이 아닌 부모들의 방음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왜 부모는 아이들이 공공 장소에서 민폐를 끼쳐도 단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이해를 바라는 거냐는 입장이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식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저귀를 가는 부모도 봤다. 게다가 휴지통이 아닌 테이블 아래에 두고 가더라. 비위가 상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와 같이 노 키즈 존에 대한 입장은 서로 굽이지 않은 채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과연 노 키즈 존은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는 업주들의 자유일까? 자신이 낸 값만큼 서비스를 받으려는 당연한 권리일까? 그도 아니면 특정 나잇대에 대한 명백한 혐오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려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닐까.

社說

선거구 획정 지연 ‘국회의 직무 유기’ 아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입지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당수 정치 신인들은 선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을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난 지 오래다. 하지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7일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

떻게 배분할지 등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개혁안을 적용하면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네 석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총선 구도에 입지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다음달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모른 채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총선이 이뤄질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지니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17~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을 할 말대로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이 끝나 총선 치러지는 비난이 높았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직무유기 탓이다. 총속으로 이뤄진 선거구 획정은 부실한 후보자 선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회는 내년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늦어도 연말까지는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끝내고 선거구 획정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한 점 의혹도 남김 없도록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어제 출범했다. 임관력(53)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은 특수단은 검사 8명과 수사관 10여 명 규모로 뜻을 올렸다.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수위 2기)로 부터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임 단장은 기존 기록과 추가 고발 등의 내용을 종합해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이 첫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수위 2기의 지난달 조사 결과 발표에 근거를 두고 있다. CCTV 조작 의혹 역시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고 특수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는 15일 ‘참사 책임자’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특수단은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각오로 참사의 원인과 기존 수사 과정 등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부터 참사 당일의 구조 지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검찰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남김 없이 파헤쳐 이번 수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광주·전남에 강추위가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하루 전인 13일부터 한반도 북서쪽에서 영하 5도 이하의 찬 대륙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기온이 뚝 떨어진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이날 아침 이 지역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2~3도 가량 낮은 영하 2~7도, 낮 최고 기온도 10~11도로 평년보다 최대 6도 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수능 당일의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10도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을 입는 등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시험 때만 되면 어김없이 추워진다는 ‘수능 한파’는 이제 ‘꽃샘추위’처럼 하나의 보통명사가 된 듯하다. 하지만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년도부터 시험 당일 ‘한파’라고 부를 만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 날씨 기준으로 단 여섯 번에 불과했으니 4년에

한 번 꼴인 셈이다. 역대 가장 추웠던 수능일은 1998년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5.3도를 기록했다. 또 1997년엔 영하 3.2도, 2014년 영하 3.1도, 2017년 영하 2.5도 등으로 집계됐다. 수능 당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낮은 경우도 여덟 차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유독 ‘수능일엔 춥다’는 고정 관념이 자리 잡은 데에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 등으로 당일의 온도나 날씨가 실제보다 낮고 춥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 수능 시험이 11월에 치러지는 것과 달리 이전의 학력고사는 훨씬 더 추운 12월에 치러졌기에 ‘입시 한파’라는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수능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능 당일의 컨디션 관리도 전략일 것이다. 마음을 편히 갖고 모든 과정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의 긴장감과 추위를 떨쳐 내고 집중력을 발휘해 노력한 만큼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해 본다. /임동욱 기자 tuim@

수능 한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195)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642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